

# 노사관계와 사업장 재해율에 관한 연구

## 조 흠 학\*

### I. 서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예방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장의 재해예방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어느정도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의 절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참여요소는 정부,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그리고 근로자라 볼 수 있고(Weeks, 199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참여하는 주요 관련 당사자는 정부, 근로자(단체) 그리고 사업주이다. 특히 이중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단체)는 서로 대등적 관계이면서 상대적인 갈등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예방에 있어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사이에 관계가 대립적 관계인 경우에는 재해율이 증가 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 일 때 노사 일치하는 목적속에 재해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가설일 뿐이고 실제로 대립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에 대한 재해율과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조사한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반적 사업장의 재해예방지원 사업보다는 사업장의 특성(노사관계)을 감안한 재해예방사업을 하게 되면 보다 재해예방참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재해예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최근 연구한 내용중에서는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관계당사자와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설계·실행·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입법과정이나 정책수행과정에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장 단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의사형성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김영문, 2006)조사 되고 있다.

\* 이 연구는 2012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속에 노사관계 유무와 노조특성(협조, 비협조)을 중심으로 단순비교 정리 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특히 20~30년 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시 근로자 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왔으며(Gevers, 1985), 이를 통하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효율성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향상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Sass, 1986; Sass, 1993; Greenlund & Elling, 1995; Berlinguer et al, 1996; Robinson & Smallman, 2000)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sup>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 사업장의 산재감소를 위한 활동들은 결국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 그리고 사업장내의 소통을 위한 교육을 통해 활성화된다는 것들을 연구조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sup>2)</sup>.

그래서 이번 연구에선는 사업장의 노조유무에 따른 사업장의 재해율과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경우의 재해율을 분석을 통하여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재해율과의 관계를 노조 유무와 노사관계 특성(협조, 비협조)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속에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노조유무와 노사관계특성(협조, 비협조)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노사관계와 재해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 II. 연구방법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를 중심으로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하여 업종별 노조 유무에 따른 재해율과 업종별 노사관계 특성(협조, 비협조)별 재해율 비교하였다. 특히 재해율, 노조유무 및 노사관계 특성(협조, 비협조)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응답자의 주관적 응답 결과로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였다.(\* 신뢰구간: 95% 신뢰수준에서 제조업 ±1.8%, 건설업 ±3.1%)

- 1) 이관형, 근로자 참여와 산재발생 관련성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9쪽 「호주에서는 안전보건에서의 참여 제도 도입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있어서 안전보건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Biggins *et al*, 1991; Biggins and Phillip, 1991a; Gaines and Biggins, 1992; Biggins and Holland, 1995; Warren-Langford, *et al*, 1993). 또한 근로자 참여의 장점으로 일상에서의 책임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의사결정권의 증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lder *et al*, 2000; Bell and Phelps 2001; Walters *et al* 2005). 나아가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서 노사간 합의를 추진하는 경우에 근로자 참여는 노사관계의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Marchington, 1996; TUC CBI 2001), 또한 산업안전보건이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에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Mossink & Licher, 1998).」
- 2) 이관형, 근로자 참여와 산재발생 관련성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10쪽 「김왕배 등(2006)은 의사소통과 안전의식은 서로 순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안전의사소통의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모든 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지각과 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그러한 의식과 지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안전의사소통이 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육은 단순히 안전 관련한 지식뿐 아니라 의식과 태도 등의 내면화를 불러 일으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 목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재예방활동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 현황을 조사
-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 서비스업 2,000개소
- 조사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등
- 조사방법: 사업장 방문 개별 면접조사(응답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 조사주기: 3년(2009년, 2012년)

분석자료는 2012년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 중 일부 포함시켜 분석대상으로 함.

- 제조업 3,000개소 및 건설업 1,000개소 응답자료
  - \* 서비스업의 경우 노조설립 사례가 적어 분석대상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에 추가된 노사관계 설문 문항
  - 문항: 다음 명제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 사측(사업주)과 노조측(직원들) 간에 관계가 신뢰하고 협조적이다.
  - \* 응답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분석에 이용된 내용
  - 재해율: 사고율, 질병율(설문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응답한 자료)
  - 노조유무: 유, 무
  - 노사관계 특성: 협조, 비협조
- 분석 방법
  - 업종별 노조 유무에 따른 재해율 비교
  - 업종별 노사관계 특성(협조, 비협조)별 재해율 비교
    - \* 재해율, 노조유무 및 노사관계 특성(협조, 비협조)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응답자의 주관적 응답 결과임.
    - \*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 비교
    - \* 신뢰구간: 95% 신뢰수준에서 제조업  $\pm 1.8\%$ , 건설업  $\pm 3.1\%$

### III. 연구결과

#### 1. 노조 유무에 따른 재해율 분석

사업장에서 노동조합(노조)유무에 따른 사업장의 재해율과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경우의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는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조 유무에 따라 분석 한 결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은 0.48%,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은 0.78% 나타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는 사업장이 신뢰적이고 협조적인 사업장의 재해율은 0.65%이고, 비 협조적이고 신뢰적이지 못한 사업장은 1.19%로 재해율이 협조적인 사업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유무관계에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은 0.41%,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은 0.65%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 재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노사관계는 신뢰적이고 협조적인 사업장의 재해율 0.53%이며, 비 협조적이고 신뢰적이지 못한 사업장은 1.7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 제조업

■ 노조가 조직 되어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0.3% 낮음

<표1> 제조업 노조 유무(단위/%)

구분	노동조합 있음	노동조합 없음
사고율 (㉠)	0.43	0.75
질병율 (㉡)	0.05	0.03
재해율 (㉠+㉡)	<b>0.48</b>	<b>0.78</b>

##### 2) 건설업

■ 노조가 조직 되어있는 사업장의 재해율이 0.24% 낮음

- 특히 사고와 질병의 전체건수에서도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2>건설업 노조 유무(단위/ 명)

구분	노동조합 있음	노동조합 없음
근로자 수	254,860	1,380,921
사고+질병 건수	1,040	9,036
재해율 (사고율+질병율)	<b>0.41</b>	<b>0.65</b>

## 2. 노사관계 협조에 따른 재해율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협력적인 관계와 대립적인 관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문은 사측(사업주)과 노조측(직원들) 간에 관계가 신뢰하고 협조적이다라는 질문에서 (전혀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지않다)는 비협적인 경우로 판단하고,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협조적인 경우로 보고 분석 하였다.

① 전혀 그렇지않다	▷ 노사관계가 비협조적인 경우 (1.19%)
② 대체로 그렇지않다	
③ 보통	(0.91 %)
④ 대체로 그렇다	▷ 노사관계가 협조적인 경우 (0.65%)
⑤ 매우 그렇다	

### 1) 제조업

■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가 신뢰적이고 협조적인 사업장인 경우에 재해율이 낮게 나오고 있다.

<표3> 제조업 노사관계 (단위/명, 건수)

구분	비 협조적	보통임	협조적
근로자 수	50,782	530,068	2,997,670
사고 건수	579	4420	18536
질병 건수	27	379	924
사고+질병 건수	606	4,799	19,460
사고율(%)	1.14	0.83	0.62
질병율(%)	0.05	0.07	0.03
재해율(%)	<b>1.19</b>	<b>0.91</b>	<b>0.65</b>

■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 사업장 규모별로도 노사관계가 신뢰적이고 협조적인 경우에 재해율이 낮음

<표 4> 제조업 사업장 규모별(단위/ 명, 건수)

구분	규모	비협조적	보통임	협조적
근로자 수	100인 미만	29,610	388,366	1,751,137
	100~300인 미만	7,045	82,513	502,727
	300인 이상	14,127	59,188	743,805
사고 건수	100인 미만	411	3,185	15,254
	100~300인 미만	98	1,032	1,547
	300인 이상	70	203	1,736
질병 건수	100인 미만	0	229	571
	100~300인 미만	0	11	130
	300인 이상	27	140	223
사고+질병 건수	100인 미만	411	3,413	15,824
	100~300인 미만	98	1,043	1,677
	300인 이상	97	343	1,959
재해율	100인 미만	<b>1.39</b>	<b>0.88</b>	<b>0.90</b>
	100~300인 미만	<b>1.40</b>	<b>1.26</b>	<b>0.33</b>
	300인 이상	<b>0.68</b>	<b>0.58</b>	<b>0.26</b>

2) 건설업

■ 건설업의 노사관계도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가 신뢰적이고 협조적인 사업장인 경우에 재해율이 낮게 분석되었음.

<표 5> 건설업 노사관계 (단위/ 명)

구분	비협조적	보통임	협조적
근로자 수	18,259	293,032	1,313,546
사고+질병 건수	313	2,758	6,917
재해율	<b>1.72</b>	<b>0.94</b>	<b>0.53</b>

■ 사업장 규모별로도 노사관계가 신뢰적이고 협조적인 경우가 재해율이 낮음

<표 6> 건설업 사업장 규모별 (단위/명,건수)

구분	규모	비협조적	보통임	협조적
근로자 수	3억원 미만	3,471	54,919	255,096
	3~20억원 미만	2,110	117,397	330,231
	20~120억원 미만	11,070	43,445	188,087
	120억원 이상	1,608	77,271	540,133
사고+질병 건수	3억원 미만	131	839	1,611
	3~20억원 미만	182	1,140	2,858
	20~120억원 미만	0	372	1,606
	120억원 이상	0	407	842
재해율	3억원 미만	<b>3.78</b>	<b>1.53</b>	<b>0.63</b>
	3~20억원 미만	<b>8.64</b>	<b>0.97</b>	<b>0.87</b>
	20~120억원 미만	<b>0.00</b>	<b>0.86</b>	<b>0.85</b>
	120억원 이상	<b>0.00</b>	<b>0.53</b>	<b>0.16</b>

\* 0.00는 응답자가 없는 경우임

#### IV. 함의

이번 조사 연구분석에서는 기업의 재해율 감소에 관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 모든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번 분석결과는 단순히 사업장의 노조와 노사간의 신뢰와 협조에 관한 일반적인 재해율의 분석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노조유무에 따른 분석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제조업, 건설업 모두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노사간의 협조와 신뢰에 관한 부분도 사업장의 신뢰도와 협조가 원활한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노조 유무와 노사관계 특성별로 재해율을 단순 비교한 탐색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추가 연구를 통해 노조유무와 노사관계 특성이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업의 재해율 감소 등 산재예방활동의 핵심적인 요인은 사업주와 노조가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안전경영정책 방침을 세우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노사관계와 임금, 고용 및 생산성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노사관계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탐색적 분석결과를 통해 노조 유무와 노사관계가 산업안전보건 예방에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재해예방에 관하여 사업장에서 보다 협력적인 노사활동과 노조의 재해예방활동 등에 관하여 효과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노조 및 노사관계와 산재예방 관련에 관한 추가 연구를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3년 자체 연구로 동향 조사를 분석하여 수행하고 있어 보다 명확한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